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6. 11. 25.(수)

국민성장펀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한국일보 11.24일자(인터넷판) 기사에 대한 설명 -

1. 기사 내용

□ 한국일보는 11.24일자 「**중소기업 66곳 중 3곳만 승인... 국민성장펀드 저리대출 승인액 86% 대기업 몫**」 제하의 기사에서,

○ "국민성장펀드 저리대출을 신청한 중소기업 66곳 가운데 9월말까지 승인을 받은 곳은 3곳(1,365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대기업은 8곳이 5조원 넘게 승인 받은 것과 대비된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전쟁에 대응해 **12개 첨단산업에 민관 합동자금을 투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대기업에 이르는 **밸류체인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민성장펀드는 '24년 설립된 **반도체저리대출프로그램**을 흡수한 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특성상** 대기업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 대기업에 대한 지원시 **첨단산업 생태계 파급효과, 상생프로그램**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국민성장펀드 출범 초기 **일부 대기업 대형 프로젝트**를 **승인***하였습니다.

* 삼성전자 평택 P5 구축사업(2.5조원), LG디스플레이 신기술 투자(1.5조원) 승인액이 총 4.0조원으로 총 저리대출 승인액의 55.4%(4.0/7.2조원)를 차지

○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금리·한도 우대, 심의절차 간소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 (금리우대) △0.1%p~△0.2%p (한도우대) 총 소요자금의 최대 90%까지 대출(일반 70%) (심의간소화) 300억 이하 대출은 기금운용소위원회 승인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추인

- 금년 10월까지 저리대출 부문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18.4%**, **건수기준**으로 **69.2%**입니다.

< '26.10월 기준 국민성장펀드 저리대출 현황(억원, %) **>**

	금액(비중)		건수(비중)	
대기업	58,900	(81.6%)	8	(30.8%)
중견기업	11,705	(16.2%)	16	(61.5%)
중소기업	1,600	(2.2%)	2	(7.7%)
합 계	72,205	(100%)	26	(100%)

□ 한편,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 부문**의 11월까지의 펀드 결성예상액은 **9.1조원**(잠정)으로, 향후 자금운용 본격화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 정책성 펀드 운용사(총 18개)로 선정된 9개 VC(벤처투자조합)의 경우 운용중인 총자산의 40% 이상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투자할 의무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	책임자	과 장	강성호 (02-2224-2010)
		담당자	서기관	장원석 (02-2224-2011)
	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부문 대출운용부	책임자	부 장	강봉구 (02-787-3931)
		담당자	팀 장	김조홍 (02-787-393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